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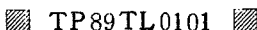


고수익을 올리는 태국의 우량기업으로 구태여 민영화를 단행하려고 하는 유인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전기통신 관련 각종 프로젝트에서 민간 활력, 외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은 주변국가와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산업기반의 정비에 까지 자본투자가 충분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도지나의 정세호전을 배경으로 무역입국을 목표로 수출관련 분야의 설비투자가 활발하다. '90년대를 향한 태국의 전기통신망의 정비는 이 산업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에 정보유통망 구축

— 일본, 개도국에 DB 기술 이전 —

아시아·태평양 제국가간의 전자정보를 유통시키기 위해 1990년부터 일본 통산성은 7개년계획으로 약 150억엔을 투자하여 「아시아·태평양 전자정보유통에 관한 연구협력」 사업을 하기로 했다. 국제공헌의 일환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DB 관련기술 및 컴퓨터의 OSI 관련기술을 발전도상국에 이전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협력을 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활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DB 정비구축기술의 개발이나 구체적으로는 대상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DB 정비구축기술의 개발이나 구체적으로는 대상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DB 정비구축기술의 개발이나 OSI 기술자의 양성등을 추진하는 한편, 범아시아 위성, 기계번역기술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국내에 종합적인 전자정보유통망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지위향상 및 도래하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일본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하겠다. 세계경제가 불럭화 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일본의 자국중심 아시아·태평양권의 불럭화의 일보라고 할 수 있겠다. 